



# 도마 위에 오른 수입녹용 불법유통

— 식약청 수입업체 일제조사, 관세청 수입녹용 검사 강화 —

수입녹용 불법유통 적발사례(회보 3·4월호 보도)가 수입녹용의 관리 감독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불법 외산녹용에 신음하던 양육인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본회는 지난달 초 서울세관과의 합동조사 끝에 총 17만7천냥에 달하는 수입녹용 불법유통 점조직을 적발한 바 있으며 기자회견을 실시, 이러한 사항을 성명서와 함께 내외부에 알렸다. 또한 수입녹용 주무부서인 식약청에 공문을 발송, 허술한 수입녹용 관리 감독을 강하게 지탄하는 한편 대책마련을 위해 식약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본회의 공문을 접수한 식약청에서는 생녹용 수입자 9개 업체에 대해 특별 약사 감시를 실시하고 식약청 각 지방청장으로 하여금 생녹용 수입현황을 파악하여 관내 생녹용 수입자 및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생녹용 수입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 조사에 나섰다.

식약청에서는 생녹용 수입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본회와 식약청장과의 면담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녹용의 최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도 단속 및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수입녹용 불법유통 적발사례를 언론사에 발표하는 동시에 수입생녹용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생녹용 등 값싼 수입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관련업체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통관 단계부터 원산지표시를 보다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실시되는 수입녹용의 현품검사 비율을 다른 물품보다 높혀 실시하고 스티커 등 유통과정에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된 녹용은 보세창고 내에서 전량 견고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시정 보완한 후 통관을 허용기로 결정했다.

또한 원산지 허위나 미표시 물품을 수입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 이들 업체가 수입 신고하는 물품은 전량 현품 검사를 실시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금번 적발된 H제약회사(현재 추가조사중)의 경우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검찰 고발 조치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업체가 향후 녹용을 수입할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전량 검사를 실시받게 된다.

한편 서울세관은 H제약회사와 결탁해 원료의약품 용도의 수입녹용을 빼돌린 안건택(대륙사슴농장), 이병호(미래사슴농장), 정유환(대성산사슴농장), 황경부(호동사슴농장)에게 법정 최고 금액인 과태료 1,000만원씩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한양대**